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완전 복구

-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비상 서비스 중이었으나 10.2(목) 완전 복구 완료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자체 재해 복구시스템을 통해 제공 중이던 해운·항만 민원 서비스를 10월 2일부터는 기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으로 완전 복구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전국 무역항의 선박 입·출항신고와 항만시설 사용신고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해양수산부는 그간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 중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하여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빠른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타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로 항만시설사용료 고지서 발급이 유예된 점을 감안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15일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기한을 14일 연장하기로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 선사들이 항만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책임자	과 장	윤두한 (044-200-5770)
		담당자	사무관	주현선 (044-200-5792)